

인민대중은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

김성일

과학기술은 국력의 기초이며 인민의 행복과 민족번영의 원동력이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발전이 모든 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떠맡고있으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수준과 속도가 규제된다.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과학기술은 다름아닌 그 담당자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발생발전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사회에서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담당자는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83페이지)

인민대중이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발전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이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발전하기때문이다.

과학기술활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한 분야이고 과학기술은 인민대중의 과학기술활동의 산물인것만큼 과학기술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발전한다.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며 과학기술이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자기자신의 힘과 객관적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세계를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요구를 가지고있지만 그것은 저절로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람이 객관적법칙을 리용하여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하여나갈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기술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로부터 발전하였다.

고대에쥘트에서 널강에 큰물이 가서진 후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토지측량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토지를 측량한다.》는 의미의 Geometry(기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큰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토지복구는 곧 자연개조를 의미하며 결국 기하학은 자연을 지배하면서 살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된다.

철학의 발생도 운명개척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력사학이라는 학문도 력사발전과정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 운명개척을 보다 원만히 실현하려는 요구로부터 생겨난것이다.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과학기술발전의 근본요인으로 된다.

주위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며 생활공간과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창조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는 인민대중의 생활적요구와 지향을 떠나서 그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의하여 발전한다.

인민대중이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이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발전하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의 발현으로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발전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과학기술발전의 근본요인이라면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은 과학기술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지식에는 물론 객관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이 반영되게 된다.

그러나 객관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은 그것을 파악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인식활동, 과학연구활동을 통해서만 과학지식으로 전환될수 있다.

이러한 과학연구활동은 바로 인간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진행된다.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과 세계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밝히는 과학연구활동은 곧 사람이 가지고있는 지적능력, 창조적힘의 작용과정이다.

인간의 창조적능력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으로 이루어져있다.

인식능력은 사물현상의 개별적속성을 감각하고 지각할뿐아니라 감성적인식의 자료를 일정한 사유형식을 통하여 분석종합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사물현상의 내적본질을 밝혀내는 능력이다.

실천능력은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 자연을 개조하며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인식능력의 작용과정은 과학지식의 축적을 가져오며 실천능력의 작용과정은 선행한 사고공정의 결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과학탐구의 가능성을 조성한다.

매개 력사적세대들의 창조적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지만 사람의 창조적능력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인간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은 무한히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세계의 어떠한 비밀도 알아낼수 있고 자연을 개조하여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인간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과 사회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인간의 과학연구활동은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된다.

개별과학의 력사적인 분화과정도 결국에는 인간의 창조적능력이 보다 높아진 과정과 일치한다.

과학기술의 력사를 분석해볼 때 높은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일수록 뒤늦게 발전하였다. 과학기술발전력사에서 의학과과학기술이 비교적 늦어지게 된것도 생물유기체의 구조가 다른 과학분야보다 비할바없이 더 복잡하고 따라서 보다 높은 지적능력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추동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된다.

인민대중이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라는것은 과학기술발전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게 과학연구의

령역을 넓히면서 새로운 과학의 분야들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은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인민대중은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인것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요인들의 작용을 규제한다.

과학기술은 주체적요인과 함께 객관적조건에서만 발전할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은 일정한 사회력사적조건과 자연지리적환경속에서 진행된다.

과학기술발전의 사회력사적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는 과학기술의 성격과 목적, 대상을 규정하며 과학기술을 위한 온갖 조건들과 수단들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회제도는 해당 사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활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규제하여준다.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과학기술발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인재가 자본에 얽매인 노예, 독점자본가들의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과학기술발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과학연구활동에서 단결과 협력의 관계를 규제한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어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이 발전하려면 과학연구활동에서 단결과 협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과학연구활동에서 단결과 협력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이 바로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과학연구사업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사회제도와 함께 물질문화적조건도 과학기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요인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문화적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실과 실험실, 실험설비와 실험기구, 자재, 살림집과 여러가지 문화휴식조건과 같은 물질문화적조건들은 과학기술발전에 리용되면서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능력을 보충하여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정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해당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따라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이 중시되는가 하는것이 규정되며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발전방향이 좌우된다.

그것은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의하여 자연개조사업의 구체적내용이 달라지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해당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관련한 과학연구가 중시되고 선행되기 마련이며 그에 맞게 과학기술의 발전방향도 선정되게 된다.

실례로 산이 많고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서는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중시되게 된다.

이것은 주체적요인과 함께 객관적인 사회력사적 및 자연지리적조건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적요인이다.

객관적요인이 과학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적으로 인간의 활동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의 과학연구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할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과학연구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과학기술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다.

이것은 세기를 이어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자기의 두뇌와 기술로 우주를 정복하고 핵기술을 틀어진 자랑찬 우리 인민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기술, 창조적능력